

선비들의 발자취 따라 나서다

진영한빛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길 따라 고인따라 우리 서원 찾아'

우리 지역에 숨은 서원과 그곳을 향 유했던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는 기회가 마련된다.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이 3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에는 '길 따라 고인(古人) 따라 우리의 서원의 찾아서'를 주제로 지역 서원을 중심으로 강의와 탐방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해시 진영한빛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올해에도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다.

한빛도서관은 오는 7월 4일 '김해의 서원과 선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소주제 1차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한빛도서관은 오는 9월 '시대의 스승 접필재 김종직과 그 젊은 제자

들의 발자취'를 주제 2차 운영을 진행한다.

또한 10월에는 '조선의 인문을 열어 간 사람, 한훤당 김굉필과 일두 정여창'을 주제로 3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초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원 인문학'이라는 정리 강의와 후속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 공모선정을 위해 주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잘 몰랐던 주변 서원 탐방을 통해 조선의 선비정신에 대한 현대적 가치를 느껴보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1차 프로그램 접수는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김해시공공시설 예약서비스 누리집(yes.gimhae.go.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통합도서관 누리집(lib.gimhae.go.kr) 또는 진영한빛도서관(055-330-4833)으로 하면 된다.

김용락 기자 rock@kndaily.com